

여수시 '전라남도지사인증제품 발굴'

3년간 상표 사용...품질관리 소비자 신뢰 확보해

우수 농수특산물·가공식품 오는 13일까지 신청

여수시가 '2020년 하반기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제'에 참여할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오는 13일까지 신청받는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수시 19개 업체 87개 제품이 도지사 품질인증제품에 선정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

고 지역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되면 3년간 포장재 등에 전라남도 통합상표를 인쇄해 판매할 수 있다.

자가품질 검사비와 제품 디자인 제작비를 지원받고, 전남도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우선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제품 출시 후 1년이 경과된 우수 제품으로, 식품제조가공 공

장이 전남도 내 소재하고 있고, 농어업인·생산자 단체가 도내에 거주하면서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로 제품을 제조 가공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달 13일까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내 특수품질성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전라남도 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통해 안전성, 상품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지사품질인증 확대를 통해 우리시 농수특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호 기자

순천소방-한국전력 순천지사 업무협약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지사장 송재동)와 재난재해 협력체계 구축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에서 한국전력 순천지사 송재동 지사장이 4백만 원 상당의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100세트를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에게 전달하였다. 기증받은 소화기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 및 기술 공유 ▲소방, 전기시설 현장체험 및 교육을 통한 정보 공유 ▲재난발생 시 장비, 자재, 인력 등 협조체

계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게 된다.

송재동 지사장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화재취약 계층에 기증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전달되는 기증품은 직원 들의 성금 참여로 모아졌으며, 주택화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수철 소방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기증해 준 한국전력 순천지사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력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밀한 공조체제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니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시민정원추진단,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도심전지역 시민정원 조성...시작부터 열기 활활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시민정원 조성 '시민정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

했다.

시민정원은 시민이 주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으로써,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기반인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진행된다.

순천시는 시민과 함께 읍면동별 대표 수목을 활용한 특화정원을 조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등 도심미관 해치는 곳, 골목, 담장, 아파트 베란다

등 자투리공간에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1인 한뼘정원 갖기 등 범시민 운동을 진행해 정원박람회 붐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 초부터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384명의 시민정원추진단을 모집하였으며, 9월 24일 왕조1·2동, 덕연동을 시작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시민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워크숍을 본격 시작했다.

읍면동 시민정원추진단은 생활주변

에서 정원으로 만들어 낼 장소를 선정하고, 디자인 구성과 조성까지 시민정원 조성 전반에 걸쳐 참여하게 되며, 2021년부터는 확정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읍면동 '대표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정원 리더로서 시민 화분 내놓기, 한뼘정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 시민 참여 붐을 일으키는 것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2022년도 국고 건의사업 발굴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등 연관된 시책 선제적 발굴



광양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주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의 2020~2024 재정운영기조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 국고지원 건의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등 핵심 추진과제와 연관된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시비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광양시는 최근 정현복 광양시장 주재로 '2022년도 국고지원 건의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48개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 102건, 계속사업 93건 총 195건(국비 3,520억 원)에 대한 논의와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도비 확보 실적을 점검했다.

2021년 국·도비 확보는 총 1,8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3억 원(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말 전라남도 이양사업과 연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확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신규 발굴한 사업으로는 ▲광양마린베이 조성 사업(1,000억 원) ▲금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1,000억 원) ▲남해안남중권중소기업연수원 건립(400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400억 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220억 원) ▲선사인 힐링파크 조성사업(220억 원) 등이다.

시는 오는 11~12월에는 '22년 국고 건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한국판 뉴딜사업, 산단대개조 사업 등 주요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신규사업 발굴 토론회 등을 추가로 개최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2021년도 국고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번 보고회에서 신규 발굴된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중앙부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군, 별교문화복합센터 부지 확정



보성군은 총사업비 355억 원이 투입되는 별교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 부지를 호교 119안전센터 인근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별교문화복합센터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면적 11,440㎡ 규모로 지어지며, 수영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보성군은 2019년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돼 별교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부지 선정으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심사를 거친 후 2021년 1월 설계공모, 2022년 4월 착공할 계획이다.

부지 선정은 별교읍 이장단(71명)과 기관단체장(30명)을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선호도(30%)를 반영했으며, 전문가 평가(70%)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선정

고흥군, 도양읍 건물 140개소 태양광·태양열 설치

고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본 사업은 국비 5억원을 포함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내년 도양읍 소재지 주택 등 건물 140개소에 태양광·태양열 시설을 3kW 기준 가구당 보조 4백만원과 자담 1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소요된다.

이번 공모에서 고흥군은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3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 등 수요조사와 사업대상을 확정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앙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발표 및 서류심사 등 총괄평가

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주택·공공·상업건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및 마을에 2층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태양열 등)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및 겨울철 난방과 온수 사용 시 경제적 혜택을 받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세와 난방비 절감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태양열 설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